



1961년 1월20일 의회의사당 앞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기념관에서 배운다

'김대중 기념관' 글로벌 명소로

(8) 케네디 도서관·박물관



1979년 문을 연 케네디 도서관·박물관은 존 F.케네디 대통령의 유년시절에서부터 암살되기까지의 생애와 업적을 21개의 테마로 담아내 역사교육의 아카이브로 활용되고 있다.

/보스톤=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케네디 추모 年 600만... 기념관이 보스톤을 살린다

보스톤=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대학시절~암살까지 그 시절로 돌아간듯 생생히 재현

케네디 공원 등 분신들 문화시설과 연계 시너지 효과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어떤 희생도, 어떤 집도,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겠다.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친구도 지지할 것이며 어떤 적에도 대항하겠다. ...여러분도 국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1961년 1월20일 워싱턴 D.C 의회의사당 앞. 며칠전부터 내린 폭설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역사적인 취임식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검정색 수트를 차려 입은 40대 초반의 '홍남' 대통령은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을 앞에 놓고 '뉴 프론티어'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무거운 의무를 동시에 부여한 그의 메시지는 주위로 공공 열어놓은 '민심'을 단숨에 녹였다. 주인공은 제35대 미국 대통령인 존 F.케네디(John F.Kennedy·1917-1963). '세기의 연설'로 회자되고 있는 그의 취임사는 이렇게 탄생했다.

그로부터 꼭 50년이 지난지만 '그날의 감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4월 중순 기자회견이 잦은 보스톤의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 & 박물관(John F.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케네디 도서관)은 여전히 케네디 대통령을 그리워 하는 방문객들로 크게 붐볐다. 올 1월부터 케네디 도서관은 그의 취임연설 50주년을 기념해 자필 원고와 육성 등을 공개하는 '시와 권력-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Poetry and Power-The Inaugural Address of John F. Kennedy)특별전을 개최해 화제를 모았다. 전시회 제목인 '시와 권력'은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식에서 자작시를 낭송한 시인 로버트 리 프로스트를 추모한 연설의 한 대목-권력이 사람을 부패시킬

때, 시는 사람을 정화시킨다-에서 따왔다.

지난 1979년 문을 연 케네디 도서관은 보스톤 항구를 바라보고 있는 도체스터의 콜럼비아 포인트(Columbia Point)에 들어서 있다. 시내 중심가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데다 메사추세츠대학 보스톤 캠퍼스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하기 한달 전인 1963년 10월, 국정운영기록들을 보관하는 국립도서관을 짓기 위해 직접 이곳을 '찜해' 놓았다. 케네디는 대통령 도서관이 '실질적인' 역사의 아카이브가 되기 위해선 시민들이 찾기 쉬운 도심에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미국에는 후버 대통령 도서관 등 4곳이 있었지만 오하이오 시골마을 등 대통령 출생지에 건립하다 보니 외진 곳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암살되자 1964년 1월13일 부인 재클린과 가족, 친구들은 케네디의 추모관이자 도서관으로 방향을 바꿨다.

약 10년에 걸쳐 3천600만 명으로부터 모은 성금 2천만 달러를 들여 세운 도서관은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져 개관과 동시에 보스톤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특히 세계적인 건축가 아이 M.페이아 설계한 모던한 분위기의 건물외관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 이상이 다녀갈 만큼 13개의 미국 대통령 도서관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다.

여기에는 그의 삶과 업적을 아우른 방대한 자료가 한곳이다. 1층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극장이 방문객을 맞는다. 이곳에서는 하버드 대학시절에서부터 군복무생활, 의정활동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기까지의 발자취가 담긴 17분 영상물이 상영된다. 극장문을 나서면 전당대회, 케네디-닉슨 TV토론, 취임식, 브리핑 룸, 쿠바 미사일위기, 우주탐사프로젝트, 백악관 집무실, 퍼스트 레이디, 케네디가(家), 1963년 11월22일(암살) 등 생애와 주요 치적들을 21개의 주제로 분류해 꾸민 전시공간들이 이어진다. 미국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실들을 충실히 재현한 콘텐츠는 후손들에게는 그 어떤 역사교과서 보다 유익하다.

특히 지난 1960년 9월26일 역사상 최초의 TV대통령 후보 토론으로 꼽히는 케네디-닉슨의 토론을 그대로 옮겨온 스튜디오와 당시의 상황을 대서특필한 주요일간지들을 함께 전시한 공간구성이 인상적이다. (이 토론을 기점으로 케네디는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닉슨을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시간주에서 온 제니퍼 스미스(54)는 "우리가 지금도 케네디를 추모하는 이유는 단순히 젊고 잘 생겨서가 아니다"면서 "2년 10개월이라는 짧은 재임기간에도 쿠바 해상 봉쇄, 왕복 우주 탐사 기록 등을 이뤄낸 훌륭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스톤은 '케네디의, 케네디를 위한, 케네디에 의한 도시'다. 보스톤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를 추모하기 위해 찰스강 주변에 건립한 '케네디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고, 그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정치·행정전문대학원)은 이제 전 세계 지성인들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 '분신'들은 보스톤 미술관, MIT 공과대학, 보스톤 심포니홀 등 교육·문화시설들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보스톤은 대통령 기념시설이 '도시를 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jhpark@kwangju.co.kr



세계적인 건축가 아이 M.페이아 설계한 모던한 분위기의 케네디 도서관은 보스톤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명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오리

약오리 백숙, 향암육수 샤브샤브, 한방오리구이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손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점심특선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신 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 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외벽 시공 사진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